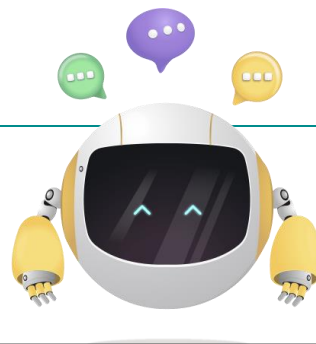




사이버 보안 우량주, AI 안정성 우려 부각되며 투자 기대감 상승

Tech&Stock Weekly | 2026.09.18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사이버 보안 우량주, AI 안정성 우려 부각되며 투자 기대감 상승

- AI 개발 속도를 늦춰 안정성 확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앤트로픽 CEO의 주장이 AI 모델 산업 내에서 힘을 얻으면서 AI 위협 방어를 위한 보안 투자 필요성 부각. 이에 사이버보안주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플랫폼 기반 여러 보안 분야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등이 가장 선전
-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시스템 접근, 권한 오남용,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방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보안 산업 내에서는 AI 확산으로 향후 3년간 4,3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보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 제시. AI 도입에 따른 공격 표면 확대와 공격 자동화로 보안 지출의 필수재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팔로알토,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엔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등 여러 중요 보안 영역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보유. 고객사의 보안 솔루션 통합 수요와 신규 AI 보안 지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는 전체 사이버보안 시장 성장성을 높이고, 시장 내에서 통합 플랫폼 사업자인 팔로알토,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빠르게 넓힐 것으로 전망

메타(META.US): 통합 구독 서비스 '메타 원' 출시

- 메타가 9월 15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의 유료 기능과 AI 사용량 확대를 결합한 메타 원을 전 세계에 출시. 개인용부터 창작자·기업용까지 구독 등급을 구분하고, 앱의 기본 기능과 일상적인 메타 AI 이용은 무료로 유지
- 개인용 요금제는 코어 월 7.99달러와 프리미엄 월 19.99달러로 구성. 두 요금제 모두 인스타그램 플러스·왓츠앱 플러스·페이스북 플러스를 포함하며, 프리미엄은 코어보다 높은 AI 콘텐츠 생성 한도를 제공. 구독자는 AI 모델 뮤즈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생성과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스타일 변경 기능 등을 더 많이 이용 가능. 코어 요금은 세 앱을 각각 구독할 때의 합계인 월 약 11달러보다 낮게 책정
- 창작자·기업용은 에센셜 월 14.99달러, 어드밴스드 월 49.99달러, 엑스퍼트 월 149달러, 맥스 월 499달러부터 시작. 에센셜은 인증 배치와 사칭 계정 보호, 왓츠앱에서 고객 문의에 자동 응답하는 메타 비즈니스 에이전트의 이용 확대 등을 제공
- 어드밴스드는 최대 30일 전 스토리 예약, 일반 게시물·릴스의 링크 삽입, 분석 자료 내보내기 기능 등을 추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팀원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위 요금제는 대규모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AI 응답 용량을 확대
- 향후 영상 편집 앱 에디츠와 AI 안경으로 구독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구체적인 요금과 기능,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앱·계정별로 차이가 존재

스페이스X(SPCX.US): 9월 22일 스타십 첫 궤도 진입 추진

- 스페이스X가 9월 22일 스타십의 14차 시험비행에서 상단 우주선의 첫 지구 궤도 진입을 시도할 계획.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실제 통신망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목표. 발사 가능 시간대는 한국시간 9월 22일 오후 9시 15분
- 지난 7월 13차 시험비행에서는 스타링크 V3 위성 20기의 분리와 통신 기능을 검증. 당시 위성은 분리 약 20분 뒤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하도록 설계된 시험용 물량. 상단 우주선은 인도양에 온전한 상태로 착수했으나,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는 착수용 엔진 일부만 재점화되면서 해수면에 강하게 충돌
- 이번 비행에서는 상단 우주선이 약 275km 고도에서 지구를 약 여섯 바퀴 돌도록 계획. 발사 약 10시간 뒤 칠레 서쪽 태평양에 착수하는 일정. 탑재 위성 중 3기에는 카메라를 장착해 대기권 재진입 때 기체를 보호하는 열차폐막의 상태를 촬영할 예정
- 발사탑의 기계팔로 상단 우주선이나 슈퍼헤비를 붙잡는 회수 시험은 이번 임무에서 제외. 궤도 진입 이후 발사장 복귀와 신속한 재사용을 검증하는 추가 시험이 필요한 상황
- 성공 시 스타링크 사업부와외의 내부거래를 통해 스타십 발사 부문의 첫 매출 발생 예정. 장기적으로는 스타십이 주당 여러 차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단계에 도달한 뒤 팰컨 9과 팰컨 헤비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킬 계획. 기존 로켓에 투입되는 자원을 스타십으로 전환해 발사 빈도를 높이려는 목적. 실제 전환 시점은 스타십의 안정적인 반복 운용과 재사용 능력 확보에 달려

세일즈포스(CRM.US): 드림포스 연례 컨퍼런스에서 FY30 매출 목표 재확인

- 세일즈포스는 연례 드림포스 컨퍼런스 애널리스트데이에서 AI 도입 확대에 따른 기존 SaaS 대체 우려에 대응하며, AI를 통한 고객당 매출 확대와 유기적 성장 재가속 전략을 강조.
- FY27 하반기 자체 매출 성장률 재가속과 FY30년 매출 목표인 '630억 달러 상회' 재확인. FY27년 매출 가이드스 461~464억 달러(+11.0~12.0% YoY), 조정 영업이익률 34.3%, 3분기 cRPO 성장률 약 14.0% 등 기존 전망 유지. FY30년까지 매출 성장률과 조정 OPM을 합산한 'Rule of 40' 50pt 달성 목표를 유지하며, 수익성과 성장의 동시 확대를 강조.
- 성장 전략은 기존 CRM을 AI 에이전트가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프리미엄 상품 업그레이드와 사용량 기반 과금을 통해 고객당 매출을 확대하는데 초점. 기존 고객의 1.0%가 상위 상품으로 전환하면 연간 계약금액(AOV) 약 1.0억 달러 증가 가능하며, AI 사용량 상위 100개 고객의 ARR은 Agentforce 출시 이후 18개월간 2배 이상 증가. 향후 AI 에이전트의 전사적 도입 시 고객당 ARR이 3~4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 현재 세일즈, 서비스 부문 사용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수 기반 과금 외에 AI 사용량과 성과 기반 과금을 병행하여 매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할 계획

실적/이벤트

사이버 보안 우량주, AI 안정성 우려 부각되며 투자 기대감 상승

- AI 개발 속도를 늦춰 안정성 확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엔트로픽 CEO의 주장이 AI 모델 산업 내에서 힘을 얻으면서 AI 위협 방어를 위한 보안 투자 필요성 부각. 이에 사이버보안주 동반 강세를 보였으며 특히 플랫폼 기반 여러 보안 분야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등이 가장 선전
- AI 에이전트의 자율적 시스템 접근, 권한 오남용, 데이터 유출 등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방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보안 산업 내에서는 AI 확산으로 향후 3년간 4,3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보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망 제시. AI 도입에 따른 공격 표면 확대와 공격 자동화로 보안 지출의 필수재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팔로알토, 클라우드스트라이크는 앤드포인트 보안,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등 여러 중요 보안 영역을 통합하는 플랫폼을 보유. 고객사의 보안 솔루션 통합 수요와 신규 AI 보안 지출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기업의 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는 전체 사이버보안 시장 성장성을 높이고, 시장 내에서 통합 플랫폼 사업자인 팔로알토, 클라우드스트라이크가 시장 점유율을 더욱 빠르게 넓힐 것으로 전망

메타(META.US): 통합 구독 서비스 '메타 원' 출시

- 메타가 9월 15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의 유료 기능과 AI 사용량 확대를 결합한 메타 원을 전 세계에 출시. 개인용부터 창작자·기업용까지 구독 등급을 구분하고, 앱의 기본 기능과 일상적인 메타 AI 이용은 무료로 유지
- 개인용 요금제는 코어 월 7.99달러와 프리미엄 월 19.99달러로 구성. 두 요금제 모두 인스타그램 플러스·왓츠앱 플러스·페이스북 플러스를 포함하며, 프리미엄은 코어보다 높은 AI 콘텐츠 생성 한도를 제공. 구독자는 AI 모델 뮤즈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생성과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스타일 변경 기능 등을 더 많이 이용 가능. 코어 요금은 세 앱을 각각 구독할 때의 합계인 월 약 11달러보다 낮게 책정
- 창작자·기업용은 에센셜 월 14.99달러, 어드밴스드 월 49.99달러, 엑스퍼트 월 149달러, 맥스 월 499달러부터 시작. 에센셜은 인증 배지와 사칭 계정 보호, 왓츠앱에서 고객 문의에 자동 응답하는 메타 비즈니스 에이전트의 이용 확대 등을 제공
- 어드밴스드는 최대 30일 전 스토리 예약, 일반 게시물·릴스의 링크 삽입, 분석 자료 내보내기 기능 등을 추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팀원에게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위 요금제는 대규모 운영에 필요한 기능과 AI 응답 용량을 확대
- 향후 영상 편집 앱 에디츠와 AI 안경으로 구독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구체적인 요금과 기능,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앱·계정별로 차이가 존재

스페이스X(SPCX.US): 9월 22일 스타십 첫 궤도 진입 추진

- 스페이스X가 9월 22일 스타십의 14차 시험비행에서 상단 우주선의 첫 지구 궤도 진입을 시도할 계획. 차세대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실제 통신망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 목표. 발사 가능 시간대는 한국시간 9월 22일 오후 9시 15분
- 지난 7월 13차 시험비행에서는 스타링크 V3 위성 20기의 분리과 통신 기능을 검증. 당시 위성은 분리 약 20분 뒤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하도록 설계된 시험용 물량. 상단 우주선은 인도양에 온전한 상태로 착수했으나, 1단 추진체인 슈퍼헤비 엔진 일부만 재점화되면서 해수면에 강하게 충돌
- 이번 비행에서는 상단 우주선이 약 275km 고도에서 지구를 약 여섯 바퀴 돌도록 계획. 발사 약 10시간 뒤 칠레 서쪽 태평양에 착수하는 일정. 탑재 위성 중 3기에는 카메라를 장착해 대기권 재진입 때 기체를 보호하는 열차폐막의 상태를 촬영할 예정
- 발사탑의 기계팔로 상단 우주선이나 슈퍼헤비를 붙잡는 회수 시험은 이번 임무에서 제외. 궤도 진입 이후 발사장 복귀와 신속한 재사용을 검증하는 추가 시험이 필요한 상황
- 성공 시 스타링크 사업부와와 내부거래를 통해 스타십 발사 부문의 첫 매출 발생 예정. 장기적으로는 스타십이 주당 여러 차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단계에 도달한 뒤 팰컨 9과 팰컨 헤비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킬 계획. 기존 로켓에 투입되는 자원을 스타십으로 전환해 발사 빈도를 높이려는 목적. 실제 전환 시점은 스타십의 안정적인 반복 운용과 재사용 능력 확보에 달림

세일즈포스(CRM.US): 드림포스 연례 컨퍼런스에서 FY30 매출 목표 재확인

- 세일즈포스는 연례 드림포스 컨퍼런스 애널리스트데이에서 AI 도입 확대에 따른 기존 SaaS 대체 우려에 대응하며, AI를 통한 고객당 매출 확대와 유기적 성장 재가속 전략을 강조.
- FY27 하반기 자체 매출 성장을 재가속과 FY30년 매출 목표인 '630억 달러 상회' 재확인. FY27년 매출 가이드스 461~464억 달러(+11.0~12.0% YoY), 조정 영업이익률 34.3%, 3분기 cRPO 성장률 약 14.0% 등 기존 전망 유지. FY30년까지 매출 성장률과

조정 OPM을 합산한 'Rule of 40' 50pt 달성 목표를 유지하며, 수익성과 성장의 동시 확대를 강조.

- 성장 전략은 기존 CRM을 AI 에이전트가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프리미엄 상품 업그레이드와 사용량 기반 과금을 통해 고객당 매출을 확대하는데 초점. 기존 고객의 1.0%가 상위 상품으로 전환하면 연간 계약금액(AOV) 약 1.0억 달러 증가 가능하며, AI 사용량 상위 100개 고객의 ARR은 Agentforce 출시 이후 18개월간 2배 이상 증가. 향후 AI 에이전트의 전사적 도입 시 고객당 ARR이 3~4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 현재 세일즈, 서비스 부문 사용자 수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용자수 기반 과금 외에 AI 사용량과 성과 기반 과금을 병행하여 매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할 계획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트럼프, 데이터센터 반대론 일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와 공개 전화 통화를 통해 AI와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AI 위험론과 데이터센터 반대 움직임을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개발 속도 조절 요구에 반대
- 통화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인 서밋에서 황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진행. 황이 휴대전화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 트럼프는 데이터센터가 개인과 주의 부를 늘리는 산업이라고 강조
- 트럼프는 추가 규제 없이도 기존 정부 권한으로 AI 기업을 감독하고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면 중국 등 경쟁국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

애플(AAPL.US): M8 Ultra 기반 AI 서버 시장 재진입 검토

- 애플이 자체 반도체를 탑재한 기업용 AI 서버를 개발하고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 2029년 출시를 목표로 하며, 엔비디아의 NVLink Fusion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 판매 대상은 AI 개발사와 일반 기업, 정부 기관으로 설정. 개발은 약 1년 전 시작됐으며, 존 터너스 최고경영자가 해당 사업을 지지
- 제품은 차세대 M8 Ultra 칩 2개를 연결한 소형 모델과 4개를 연결한 대형 모델로 검토 중. NVLink Fusion은 칩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스위치-칩렛-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여러 칩을 연결해 함께 작동시키는 역할
- 애플은 2011년 Xserve 판매를 중단한 이후 기업용 서버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상태. 최근 AI 개발자들의 맥 미니와 맥 스튜디오 수요가 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자체 M 시리즈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서버 시장에 활용하려는 배경으로 작용

알파벳(GOOG.US): 블랙스톤·알파벳 합작사, 220억 달러 칩 대출 추진

- 블랙스톤과 알파벳의 클라우드 합작사 Crux AI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 10곳이 22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마련 중. 조달 자금은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인 TPU 구매에 사용 예정. 대출은 구매한 반도체의 가치와 Crux AI의 고객 계약을 담보로 구성
- 양사는 지난 5월 합작 계획을 발표했으며, Crux AI는 지난주 공식 출범. 블랙스톤은 초기 자기자본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구글은 TPU와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제공. 첫 500MW 규모의 설비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 주요 고객은 전용 연산 자원과 맞춤형 인프라가 필요한 AI 연구기업, 기술기업, 일반 기업 및 정부 기관
- 대출 참여 은행에는 골드만삭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노바스코샤은행 등이 포함. 은행단은 추가 금융기관을 모집해 대출을 나눠 보유하는 공동대출 방식으로 위험 분산을 추진 중

아마존(AMZN.US): 제너랙과 데이터센터 발전기 공급계약 체결

- 아마존이 제너랙과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입 권리도 확보. 2027~2028년 초기 납품 예상액은 총 24억 달러. 계약 공개 이후 제너랙 주가는 9월 16일 시간외 거래에서 40% 이상 급등
- 아마존이 확보한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제너랙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대상 주식은 최대 약 169만 주. 주당 행사가격은 200.93달러이며, 전량 현금 행사 시 매입대금은 약 3억4,000만 달러. 워런트 행사 기한은 2033년 9월까지이며, 대상 주식은 제너랙 발행주식의 약 3%에 해당. 대상 주식 중 30만7,954주는 즉시 행사 권리가 확정되고, 나머지는 아마존의 발전기 구매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정되는 구조. 잔여 권리의 확정 조건은 누적 구매대금 최대 80억 달러와 연계. 따라서 80억 달러는 초기 납품 예상액 24억 달러와 구분되는 구매 연계 기준이며, 전액 확정 수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인텔(INTC.US): SK하이닉스·인텔, 미국 메모리 생산 협력 검토

-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 중. 논의되는 방안은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일부를 임차하거나, 인텔·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방식.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두 방안 모두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
-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에 건설 중인 시설은 첨단 패키징 공장으로, 이번에 논의되는 메모리 제조시설과는 구분. 오하이오에서 생산할 구체적인 제품은 확인되지 않아 HBM이나 DRAM 생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
-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은 가동이 다음 2030년 이후로 지연된 상태로, 협력 논의가 당장의 생산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상황. 실제 사업화까지는 계약 확정과 공장 준비, 관련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

크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개발 감속론에 실시간 방어 강조

-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조지 커츠 최고경영자가 9월 14일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 보안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이미 공개된 첨단 모델과 가중치 공개 모델도 위험한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커츠는 사이버 위협의 중심이 개별 해커에서 스스로 공격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집단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해 기계 속도로 공격을 실행하는 현상을 새로운 위협으로 제시. AI가 범죄자나 개인에게도 고도화된 공격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격의 기술적 수준만으로 배후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고 함. 공격자 식별에는 기술 숙련도보다 계정 정보, 사용 인프라, 공격 목적이 중요해짐
- 핵심 대응 수단으로는 AI가 실제 작동하는 순간의 감시와 통제를 강조. 보안 정책을 문서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실행 중인 공격을 막기 어려우며, 단말기·클라우드·업무용 소프트웨어에서 즉각적인 차단이 필요
- 나아가 각 AI 에이전트를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관리하고, 업무에 필요한 최소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 유효기간이 짧은 인증정보, 행동 추적 기록, 긴급 중단 기능도 필수 통제 수단으로 제시

앤스로픽(비상장): 앤스로픽·세일즈포스, AI 성능 발전과 기업 활용 사이의 격차 해소 강조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와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기업의 A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두 사람은 9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행사에서 기업 현장의 도입 과제를 논의
- 아모데이는 현재 AI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5~10%만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 베니오프도 기업별 AI 도입 수준의 편차가 크다며 고객의 전환을 가속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양사는 지난 8월 클로드를 세일즈포스 제품에 통합하는 협력 확대를 발표. 베니오프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내부에서도 직원 7,000명이 클로드와 통합된 도구를 사용 중

오픈AI(비상장): 기업가치 1.2조 달러 투자 제안 수령

- 오픈AI 투자자들이 기업가치 1.2조 달러를 기준으로 신규 투자 유치를 제안했으나, 회사는 아직 공식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 투자자 측이 먼저 접근한 단계로, 투자 유치 규모와 참여 투자자 명단도 미공개
- 제안된 기업가치는 지난 3월 투자 당시 8,520억 달러보다 약 41% 높은 수준. 오픈AI는 당시 1,22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사라 프라이어 최고재무책임자는 9월 15일 인터뷰에서도 재무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 일부 투자자는 이번 거래를 직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로 제시. 오픈AI는 이미 8월 약 70억 달러 규모의 기존 주식 매각을 완료해 직원들의 보유 지분 현금화를 지원한 상황
- 회사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관련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했으며, 시장에서는 2027년 기업공개를 예상. 프라이어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2027년 상장 방침을 전달하면서 사업 성장세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언급. 다만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9월 12일 인터뷰에서 AI 안전 우려를 이유로 현시점의 상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하여 정확학 시기는 불확실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전력망·장비·인력·인허가, 가장 늦는 병목이 데이터센터 가동일을 결정

- 전력 확보 시간은 계통연결만의 문제가 아님. 수백MW의 신규 부하를 수용하기 위해 송전망과 변전소를 검토해야 하고, 계통을 우회해 자체 발전을 선택해도 가스터빈·가스엔진·변압기 등 발전·전력기기의 공급 병목을 다시 만나
- 현장에서는 전기기사와 정비공 등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전력과 장비가 준비돼도 지역사회 반대와 인허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동이 늦어져
- 데이터센터의 실제 상업가동일은 전력망, 장비, 시공, 인허가 가운데 가장 늦게 해결되는 병목에 맞춰짐
- Time-to-Power가 길어질수록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기다리는 대신 시간을 사게 됨
-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를 현장에서 처음부터 건설하지 않고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조립하는 PMDC. Vertiv가 제시한 PMDC의 배포기간은 10~18개월로 전통 데이터센터의 최대 6년보다 짧아
- 두 번째는 계통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부지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현장발전
- 세 번째는 신규 전력 확보 대신 가상자산 채굴업체 등이 이미 확보한 계통연결과 변전소·부지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방식
- 데이터센터 경쟁력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신청했는가에서 얼마나 빨리 실제 사용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는 중

블룸에너지 <The New Rules of AI Power> 보고서

- 블룸에너지는 800V DC 전환 효과를 강조하는 <The New Rules of AI Power> 보고서를 발간
- 랙당 전력수요는 2020년 이후 약 20배 증가했으며 2027년에 600kW, 궁극적으로 1MW 도달 전망
- 이 경우 현재의 AC 배전 방식에 한계
-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 기준 800V DC 전환할 경우 기존 대비 Capex를 36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
- 5년간 총 수요비용은 55억 달러 절감 기대(9% 절감)
- 블룸에너지는 온사이트 전력원 중 DC를 생산하고 GW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 태양광은 DC 전력을 생산하지만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
- 터빈과 왕복 엔진은 지속적이지만 AC를 생산해 추가적인 변환 인프라를 필요로 함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9월 1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